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THANK YOU FOR ALL

2015년 5월까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후원한 기업입니다.

서울우유 · 아워홈 OURHOME · Studio Musical · 신한은행 · 하나로마트 · KB 캐피탈 · 1991 · Domino's Pizza · AMO · AMOTECH · kyoChon · 하나은행 · 태양자동차공업사 ·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 Dongwha · 한국주류산업협회 · donordonut · 해피빈 · create with you · 숭실대학교 · 삼성증권 SAMSUNG · 대농할인마트 · HANYU L&S · 우리은행 · MIRAE ASSET 미래에셋 · Fingertip Communication HIMS · KT&G 상상univ · 신협 · Alpha · SPAPLEX PUKSUWON SPAPLEX · 바타쿠 Buy Talent Coupon · 천연물나라 · SCHAEFFLER · Siloam Eye Hospital 실로암안과병원 · SAMSUNG · TO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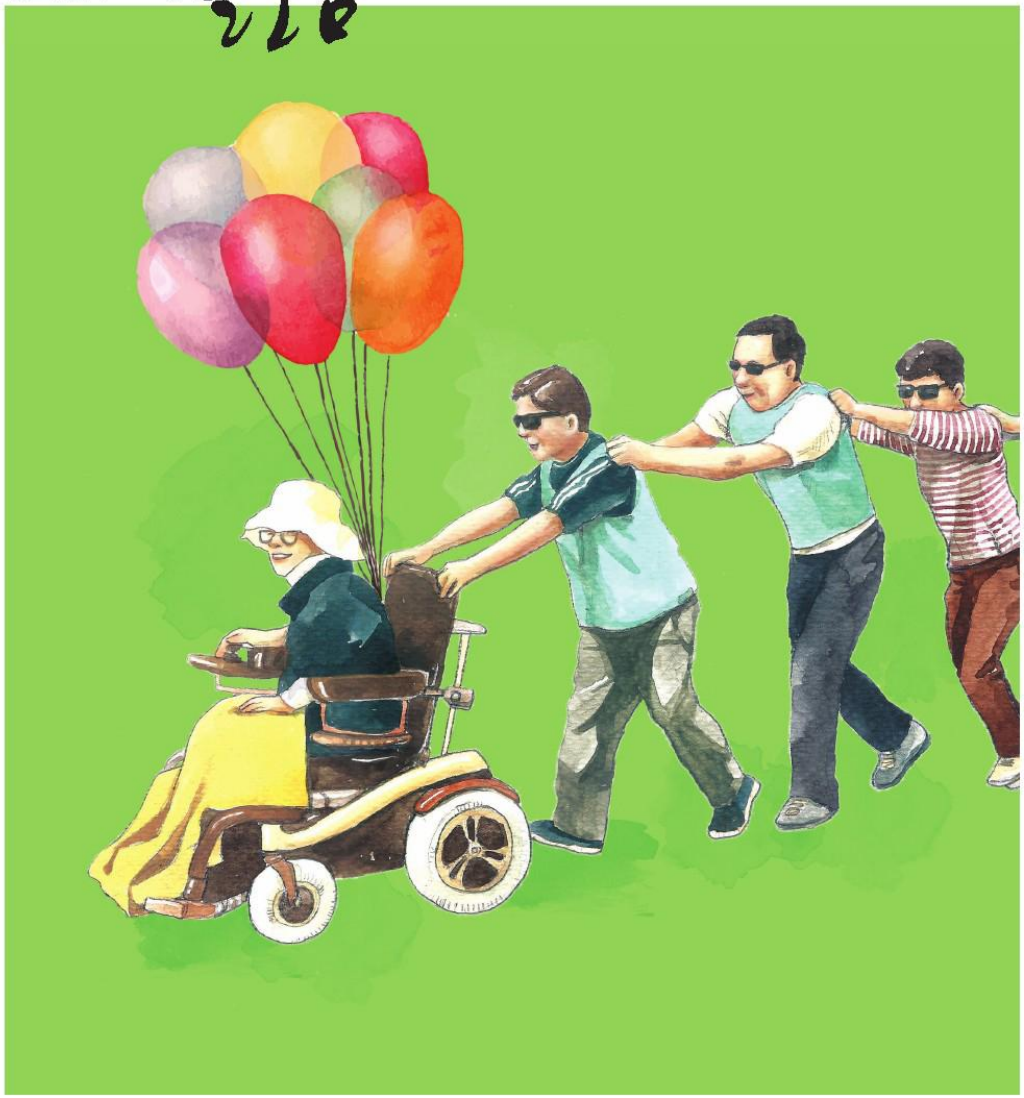
정기후원 문의 02.880.0868
자원봉사 문의 02.880.0866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재활복지를 선도하는 국내 최대의 시각장애인 복지관입니다

vol.119

빛을 주는 실로암

이웃을 내 몸 같이.



나뭇가지가 바람에 뚝뚝 부러지는 것은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는 새들을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뭇가지로 살아남는다면
새들은 무엇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_정호승 '부러짐에 대하여' 중에서

vol.119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VOICEYE voiceye.com

제호 격월간 「빛을 주는 실로암」
발행일 2015년 5월 29일 통권 119호 이사장 김선태 발행인 김미경 편집인 함요한, 배지혜
발행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 (151-84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은천동 931-7)
TEL 02. 880. 0500 FAX 02. 887. 1120 E-mail silwel@chol.com Homepage http://www.silwel.or.kr
트위터 https://twitter.com/silwel2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lwel2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silwel.do
Telnet bbs.silwel.or.kr Web BBS http://web.silwel.or.kr ARS 02.880.0900 문의 홍보팀 02.880.0867
디자인 인쇄 우리미술 02. 2275. 6960

02+04
February April

Contents

04 **포커스**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

06 **새소식 ①**
사인 LED 튜브 출시

07 **새소식 ②**
2015년 개발도상국 장애인지원사업 시작

08 **희망나눔**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_ 정진 님

09 **사랑나눔**
작은 날갯짓으로 나비효과를 꿈꾸다_ 책 읽어주는 누나

10 **해피스토리**
사진으로 만나는 2월~4월 사업 현장

14 **문화산책**
뷰파인더 너머의 세상을 담다_ 출사 핫플레이스 BEST 5

16 **정보&이슈**
손으로 느끼는 명작_ 시각장애인 위한 3D 작품 전시회

18 **미리보기**
6, 7월 행사 안내

19 **나눔플러스**
후원안내

시각장애인가족
1,000여 명이 한자리에!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

청명한 하늘과 따뜻한 바람이 완연한 봄을 알리던 4월 25일.
이른 아침부터 여의도 국회운동장이 시끌벅적합니다. 이날 있을 한마음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2015년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는 1,000여 명의 시각장애인가족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웃고 뛰놀며, 웃음과 열정이 가득했던 그날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모두가 하나 된 축제의 장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는 시각적인 제약으로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 1,000여 명이 함께해 더욱 의미 깊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운동경기는 팔씨름과 줄다리기, 인간기차, 개인릴레이 등 시각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는 과정도 있었지만, 운동경기를 즐기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운동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들이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족사진촬영 부스와 게임부스, 그리고 아동체험 부스를 별도로 마련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축제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본 행사를 마치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 내 국회운동장에서 대규모 시각장애인 행사가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한마음축제가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자활의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 뒤에는 묵묵히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번 한마음축제를 위해 우리은행, 한유에너지, 힘스인터내셔널, 해피빈, 태양자동차공업사, KT&G 상상 univ(남서울본부), 도미노피자, 교촌치킨, KB캐피탈, 하나은행, 대농할인마트가 후원했으며, KT&G 상상 univ 대학생 자원봉사자 50여 명과 하나은행 직원 봉사단이 참여해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해주신 시각장애인가족 및 후원자,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빛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빛을 만듭니다

샤인 LED 튜브 출시

전기료가 획기적으로 절약되고 눈 건강에도 좋다는 이유로 LED 조명이 대세입니다. 서울시도 2018년까지 모든 조명을 바꾸겠다는 계획아래 'LED 도시 조성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실로암인더스트리(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도 직접 LED 조명 생산과 판매에 나섰습니다. 특별한 것은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직접 LED 조명을 제작한다는 점입니다.

2015년 3월부터 실로암인더스트리에서 생산되고 있는 LED 조명의 제품명은 바로 '샤인 LED 튜브'. 빛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빛을 만들어 세상을 밝게 비춘다(Shine)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 외에도 '샤인 LED 튜브'는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5만 시간 이상 오래가는 고효율 제품이라는 점, 설치를 위한 별도의 전기 공사가 필요 없으며, 감전방지 스위치가 내장되어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샤인 LED 튜브'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전기용품안전성인증' 그리고 '전자파적합성인증' 등 다양한 인증을 받으며 동일한 제품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합니다.

바로 바꿔, 더 밝게, 더 오래 쓸 수 있는 '샤인 LED 튜브'. 본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활성화될수록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확대'라는 사회적 목적이 실현되니, 실로암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품 문의 정종일 사회복지사
010-4662-3364 / 02-880-0555
siloamled@nate.com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2015년 개발도상국 장애인지원사업〉 시작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올해부터 〈개발도상국 장애인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 장애인 기관에 필요한 교육과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지원국 스스로 재활 및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위탁으로 진행되며, 라오스,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총 4개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라오스에는 장애인 직업재활, 몽골에는 장애인 재활치료,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는 장애인 교육재활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4월 29일, 라오스시각장애인연합회(Lao Association of the Blind)와 장애인지원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라오스시각장애인연합회의 안마센터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시설 개보수, 재활보조기기 및 물품지원, 전문안마사 역량강화 교육, 안마사 양성 훈련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라오스에 이어 4월 30일, 몽골국립의과대학과도 장애인재활치료지원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재활치료 장비지원, 치료실 리모델링, 재활의학과 의사와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교육 등 몽골국립의과대학의 재활치료 서비스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둬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국내의 시각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애써온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도움이 절실한 해외로 눈을 돌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기부할 계획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아들의 자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개발도상국 장애인지원사업이 현지 장애인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로암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2~2014년
효명장학생 정진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

2010년, 어둠이 찾아왔다. 미숙아로 태어나는 바람에 앓아온 망막증. 고등학교 때 오른쪽 시력을 잃은 후 겨우 보이던 왼쪽 눈의 빛마저 사라졌다. 참혹한 상황이었지만 좌절은 없었다. 오랜 시간 꿈꿔온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이후로도 한결같았다. 귀로 법전을 듣고 또 들으며 공부에만 매진했다. 그 결과 2014년 11월, 그는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로스쿨 합격부터 졸업까지 학업을 이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09년, 워싱턴 조지타운대 로스쿨에 입학시험을 볼 당시 백내장이 생겨 시력이 계속 나빠졌어요. 다행히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로스쿨 1학기 때 모든 시력을 잃었죠. 이후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많이 힘들었어요.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칠 수도 없었고, 발음이 비슷한 법률용어는 매번 헷갈렸죠. 다행히 입학시험 후 잠시 귀국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센스리더와 한소네 같은 보조공학기기 다루는 법을 배웠고, 글을 소리로 변환해주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후에도 미국 변호사의 꿈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시력을 잃었다고 포기할 순 없었어요. 사실 시력이 조금씩 악화됐기 때문에 실명을 예상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정말 좋아져서 어떤 공부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어요. 시력을 잃었다는 것을 제외하곤 여러모로 좋은 상황이었죠.

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는데 로스쿨로 방향을 전환한 계기가 있나요?

학부 시절, 복수전공으로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변호사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보고 막연히 꿈꿔왔던 제 삶의 비전과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어 도전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 진학한 이유는 당시 미국의 시각장애인 변호사들이 로펌, 기업, 정부 등 많은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장애를 딛고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면서 배우고 싶었어요.

2012년~2014년까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효명장학생으로 선정되셨는데요.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학비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었데, 장학금을 받다 보니 재정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죠. 감사하게도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효명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학비 후원을 받았고, 보조공학기기 사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꿈을 이루는데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었죠.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현재는 워싱턴에 있는 로펌에 다니며 형사 · 민사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일단 금융이나 국제거래 분야에서 활동하며 경험을 쌓고 싶고,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열심을 내고 싶어요. 충분히 경험을 쌓은 후 귀국해 장애인을 위한 공익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시각장애를 딛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저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과연 시각장애인이 그 일을 한 적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어떤 일에 도전하는 것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도전 그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도전해보세요. 누구나 최초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날갯짓으로 나비효과를 꿈꾸다

전자매체와 가까워진 이 시대 아이들에게 책 읽는 문화를 전하고자 뭉친 멋진 형, 누나들이 있다. 바로 자원봉사단체 '책누나(책 읽어주는 누나)'다. 2013년 가을, 같은 뜻을 품은 3명의 책누나, 형들이 만나 봉사를 시작한 이후 현재 60여 명의 봉사자들이 전국의 사회복지기관과 도서관을 방문해 꾸준히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과도 연결되어 한 달에 한 번, 시각장애 아이들과 함께 책을 매개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믿으며 뚝심 있게 봉사를 이어가는 '책누나'의 대표 장승혜 님을 만났다.

'책누나'라는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한 두 명의 누나들(공연기획자 장수혜, 배우 전수연)이 도서관에 남자아이들이 많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이들을 오게 하기 위해 누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책누나'뿐 아니라 '책형'들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웃음)

어떤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책 읽는 문화를 전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기관을 찾아가서 낭독공연, 이야기극장 등을 엽니다. 각 팀의 멤버들이 한 달 동안 콘텐츠를 성실히 준비하며, 공연 후에는 다양한 독후활동 및 1:1로 책 읽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반 직장인부터, 배우, 아나운서, 성우, 학생 등 정말 다양합니다. 하는 일, 사는 곳은 모두 다르지만 '책'과 '아이들'에 관심을 갖고 모였기에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시각장애 아이들을 만나 책으로 소통하며 느끼신 점이 있나요?

사실 시각장애 아이들을 만나기 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을 만나보니 똑같더군요. 같은 부분에서 웃고, 같은 부분에서 슬퍼하고. 아이와 어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살았구나' 하고 반성하게 됐어요. 또, 처음에는 "책 읽자"는 얘기에 방방 뛰던 아이들이 많았는데 꾸준히 만나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이 저희를 먼저 반겨주고, 조용히 앉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등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곤 합니다. (웃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시각장애 아이들은 표현 방식이 참 순수하고 남달라요. 한번은 "솔방울은 어떻게 생겼어?"하고 물었더니 한 아이가 대답하더군요. "여기 위는 뾰족한데, 아래로 내려가면 라면땅 같아." 눈을 감고 느껴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저희가 더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지금은 7월에 있을 제2회 북콘서트를 준비 중이에요. 최종 목표는 책 읽어주는 문화를 퍼트려 '책을 읽지 않던 아이들이 책을 읽는' 기분 좋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책을 읽어준 아이들이 훗날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01 2015년 상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_2월 26일
상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총 9명의 대학생에게 2,6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수여식에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김선태 이사장, (주)아모텍 김병규 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02 2015 스키캠프_2월 25일~27일
문화체육지원센터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리조트에서 27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스키캠프를 진행했습니다.

03 상반기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대여식_2월 27일
정보활용지원팀은 보조공학기기대여식에서 총 20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해주고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시연했습니다.

04 상반기 국어 점역 · 교정사 시험대비 점자교육_2월 10일~4월 10일
점역교정사 자격증 취득 및 점자교재 제작 자원봉사를 원하는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국어 점자교육을 진행했습니다.

05 설리번학습지원센터와 한양대 MOU 협약식_2월 3일
설리번 학습지원센터는 시각장애학생들의 촉각교재 지원과 연구를 위해 한양대 기술경영 대학원과 MOU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06 일본 라이트하우스 방문_3월 16일~20일
일본 라이트하우스에 방문하여 점자도서관, 맹학교 교과서 제작사업, 안내견 훈련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견학했습니다.

07 복지관 2015년도 2차 운영위원회_3월 23일
2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2014년도 결산 보고와 2015년 상반기 운영계획, 사업실적 및 후원사항, 시설 운영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08 조이플중창단, 실로암안과병원 부활절 초청 공연_3월 30일
조이플중창단은 실로암안과병원에서 열린 부활절 기념 음악회에 초청되어 약 100여 명의 병원 관계자 및 초청 관객들에게 음악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09 2015 해외기관방문_3월 2일~4일
시애틀의 라이트 하우스와 the washington talkingbook and braille library, LA의 Junior Blind of America, 그리고 The Blind Community Center of San Diego를 방문해 시각장애인 자립을 위한 미국 내 프로그램 및 시설을 탐방했습니다.

10 음악교육지원프로그램 진행_3월 16일~
설리번학습지원센터는 시각장애아동 청소년의 여가음악활동을 위한 전통음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2015년 제 1차 씨네토크_3월 28일
실로암점자도서관은 '세상을 깨안는 영화읽기'의 첫 번째 시간에 '해적'을 보며 '조선 초기 국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동극'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씨네토크를 개최했습니다.

12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위안부 어르신 위한 '나눔의 집' 공연_3월 19일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경기도 광주시에 자리한 위안부 보호시설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로와 희망의 국악공연을 펼쳤습니다.

01

06

02

03

12

09

04

07

08

05

10

11

13 2015년 전국장애인버리스타대회 입상_3월 13일~15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장애인버리스타대회에 카페모아팀 윤해원 버리스타, 조연화 버리스타, 함보미 매니저가 참가해 은상을 차지했습니다.

14 2015년 자립생활기술훈련 기초과정 워크숍_3월 16일~17일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수강생들의 유대감 증진과 자립생활 능력 함양을 위해 안면도 일대로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15 우리은행 후원금 전달식_ 3월 20일_3월 20일
우리은행 관악동작영업본부 임직원 30여 명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녹음도서 제작 및 헤드셋 포장작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은행 측이 전달한 후원금은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 후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6 2015년 1차 가족야외체험_4월 11일
신한금융투자가 주최한 봄맞이 가족사랑 축제에 시각장애인 다섯 가정이 참가해 공연 관람, 쿠키만들기, 에어바운스와 바이킹 등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7 광주세광학교 이동 직업평가_ 4월 7일~9일
직업평가센터는 광주세광학교를 방문하여 중, 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진단 및 직업재활 계획수립을 위해 직업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8 2015년 1차 활동지원사업 나들이_ 4월 10일
지역사회지원센터는 지난 4월, 꽃이 만발한 남산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나들이를 진행했습니다.

19 실로암아카데미 _3월 24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3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로암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 KB캐피탈 기부금 전달식_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KB캐피탈로부터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기부금은 저소득중증시각장애인 가정에 생필품 전달 및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의 후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VOICEYE
voiceye.com

수학 점자도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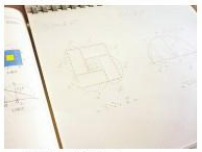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들의 학습에 필요한 점자도서를 제작합니다.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제작하는데요. 이를 위해 각 분야별 능숙한 점역 · 교정사들이 필요합니다.

수학 점자도서 제작과정

01 묵자 수학도서의 내용을 점자로 변환

02 다양한 도형과 그래프를 점자로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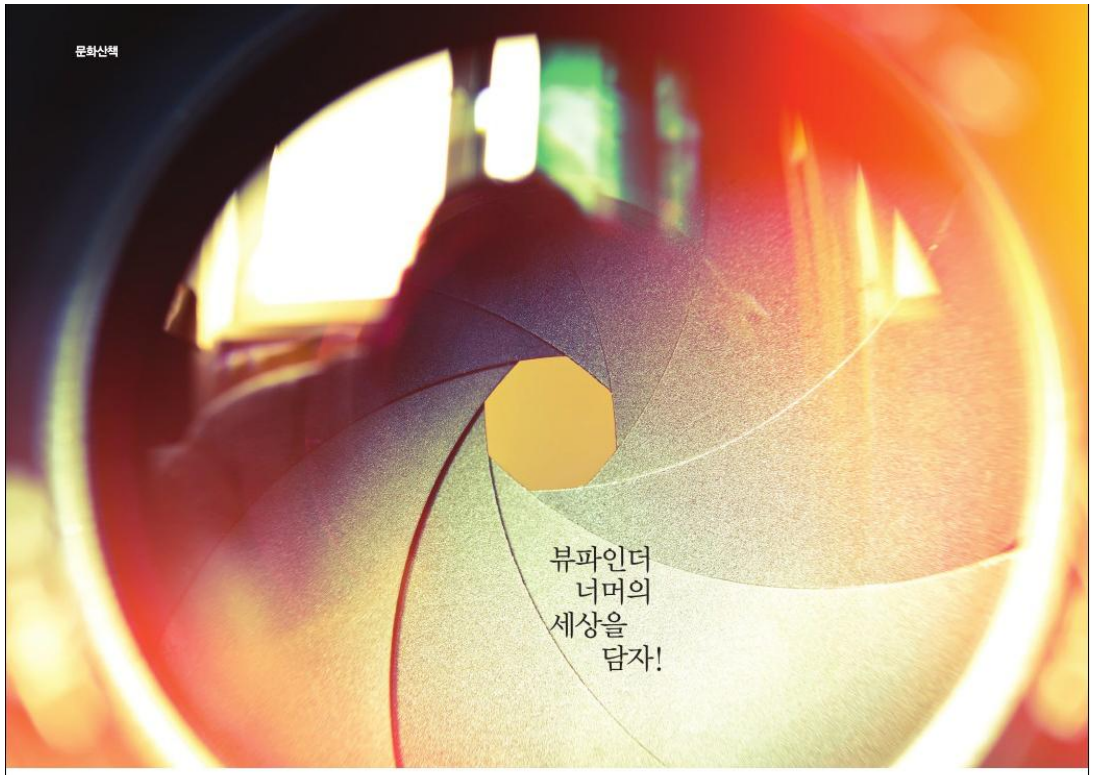
03 점역사와 교정사가 1:1로 교정 작업을 진행


04 완성된 수학 점자도서

한 권의 점자도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보통 점역사 1명과 교정사 1명이 필요합니다. 점역사가 점역을 끝내면 시각장애인 교정사가 점자로 된 파일을 소리 내어 읽으며 묵자본과 비교해 틀린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교정 작업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학 점자도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수고로운 과정이 뒤따릅니다. 한글이나 영어로 된 도서는 점역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점역할 수 있지만, 수학도서는 점역프로그램이 따로 없어 점역사가 직접 점자를 찍는 알점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학 점자도서는 복잡한 도형과 그래프 같이 텍스트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그림으로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점자도서에 비해 제작기간이 긴 편입니다. 보통 한 권의 수학 묵자도서를 점자로서로 만들 경우 3~4달 정도의 시간이 들며, 분량 역시 7~8권으로 늘어납니다.

최근 들어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점자도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점자도서 제작에 필요한 점역 · 교정사 양성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사 핫플레이스

BEST 5

쨍한 햇빛과 푸른 녹음 덕분에 여름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도 3월부터 6월까지 사진교실을 진행하며, 시각장애인분들이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다양한 세상을 담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번호 문화산책에서는 사진 찍기 좋은 계절 여름을 맞아 좋은 카메라 장비 없이도 근사한 사진을 연출할 수 있는 국내 출사 핫플레이스를 안내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 사진교실을 통해 탄생한 시각장애인분들의 멋진 사진 작품들도 함께 소개합니다.

그림 속 풍경 '두물머리'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97)
사진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장소 중 하나. 일교차가 큰 시기의 이른 아침 풍경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노을빛으로 하늘과 강물이 함께 물드는 두물머리의 일출과 일몰 풍경은 찍는 컷 마다 작품!

바람 속 풍경을 만나다 '임진각 평화누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53)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드넓은 잔디언덕 위 형형색색으로 수놓인 바람개비는 한반도를 오가는 자유로운 바람을 의미한다.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다양한 조형물들이 사진의 좋은 배경이 되어 준다.

가평에서 만난 천지 '호명호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산329)
산 정상에 호수가 있다면 어떤 풍경일까. 호명산 꼭대기에 있는 호명호수를 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늘과 맞닿은 호명호수는 마치 백두산 천지를 떠오르게 할 만큼 아름답다. 수려한 산세와 어우러진 풍광은 가평 8경 중 제2경으로 꼽힌다고.

노란 봄의 전령사 '주읍리 산수유마을'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 일대)
양평군 개군면은 예로부터 산수유와 한우가 유명한 고을이다. 특히 주읍리 일대는 산수유나무 7,0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는 산수유마을로 해마다 봄이 되면 온 마을이 노랗게 물든다.

이국적인 평원의 호밀밭 '안성팜랜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신두리 451)
129만㎡의 광활한 호밀밭사이의 목장길에는 이국적인 풍경에 사로잡힌 방문객이 넘쳐나고, 아름다운 초원의 일출사진을 담으려는 사진애호가들은 새벽부터 안성팜랜드에서 자리경쟁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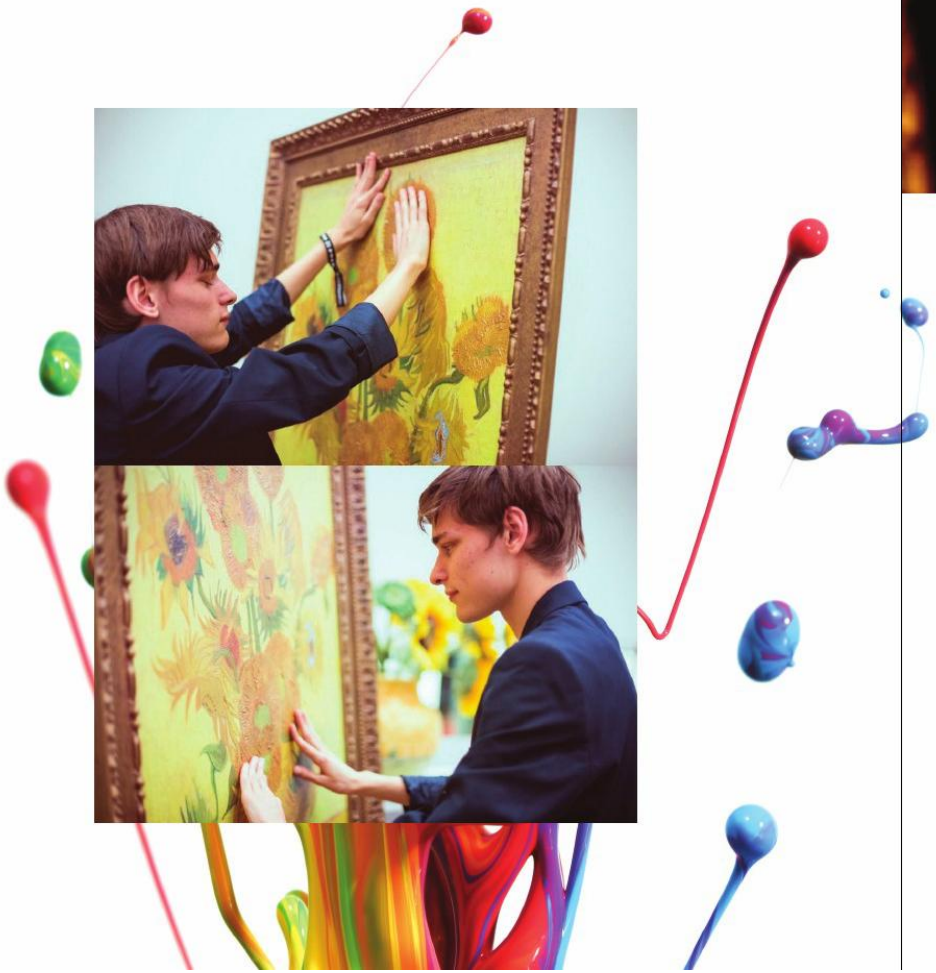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찍은 '사진 작품'

작품명(작가) 1. 내 눈은 몇 개(강수원) 2. 달리고 싶다(시태훈) 3. 석양(시태훈) 4. 어느 인생길 중(시태훈) 5. 꽃(이홍상)

손으로 느끼는 명작

시각장애인 위한 3D 작품 전시회 열려

일반 미술관에서 흔히 보이는 '만지지 마세요'라는 문구 대신 '마음껏 만지세요'라는 문구가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인데요.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서 얼마 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만지는 그림 전시회'가 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반 고흐 미술관]

손끝으로 느껴보세요

지난 4월부터 반 고흐 미술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반 고흐 느끼기'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시각장애인들은 큐레이터에게 고흐의 그림과 그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3D 프린터로 제작된 정교한 고흐의 복제품을 손으로 만지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반 고흐의 그림은 강렬한 붓터치에서 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반 고흐 미술관은 고흐가 어느 부분에서 채료를 더 두텁게 칠했는지 시각장애인들이 만지면서 느낄 수 있도록 매우 정교한 복제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외에도 미술관에는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고흐가 그린 '침실'이라는 작품과 똑같이 꾸며진 체험 공간을 마련해 남프랑스에서 온 라벤더 향을 맡아볼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전시를 함께 진행 중입니다.

기술의 발달과 인식의 변화 함께 필요해

사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지는 명화를 전시한 건 반 고흐 미술관이 처음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루브르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런던 국립 미술관,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도 3D 프린터를 활용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림 전시회를 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3D 프린트의 발전에 힘입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석굴암과 피에타'라는 제목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촉각전시회가 진행되는 등 시각이 아닌 다양한 감각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장애인들이 장애를 뛰어넘어 문화예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장애를 향한 사회의 올바른 인식 역시 꾸준히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0607
2015

Program

행사 및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년 실리번 여름캠프

시각장애인 아동, 가족, 청소년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2015년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 대　　상 : 아동캠프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시각장애아동,
초등학교 4~6학년 비장애아동
가족캠프 | 부모가 시각장애인인 가정
청소년캠프 | 시각장애를 가진 청소년
· 일　　시 : 아동캠프, 가족캠프 | 2015년 7월 24일(금)~26일(일) 2박 3일
청소년캠프 | 2015년 7월 29일(수)~30일(목) 1박 2일
· 장　　소 : 옥계 한국여성수련원
· 문　　의 : 02-880-0603 가족지원센터

2015 상반기 보조공학기기 활용대회

보조공학기기 대여자들의 학습능력 및 기기활용능력 향상시키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활용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5년 7월 중
· 장　　소 : 2호선 봉천역 4번 출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 문　　의 : 02-880-0533 정보활용지원팀

2015 시각장애대학생 잡헌팅 캠프

시각장애인 대학생의 취업준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캠프로 면접기술 향상 훈련, 선배와의 대화, 모의면접 등을 실시합니다.

· 일　　시 : 2015년 7월 1일~3일
· 장　　소 : KT&G 강화수련관
· 문　　의 : 02-880-0852 고용지원센터

수상스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서 수상스키의 이론 및 실기교육(지상교육, 수중교육)을 실시해 수상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일　　시 : 2015년 7월 중
· 이 용 료 : 35,000원
· 문　　의 : 02-880-0534 문화체육지원센터

점역 · 교정사 시험대비 점자교육

점역 · 교정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받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및 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역 · 교정사 양성교육〉을 시행합니다.

· 일　　시 : 8월 4일~10월 16일 매주 화요일 19:00-21:00
· 장　　소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내 교육실
· 이 용 료 : 10,000원
· 문　　의 : 02-880-0633 점역팀

Notice

알려드립니다

2015 상반기 사랑나눔 바자회

저소득중증시각장애인의 물품지원비 마련을 위해 물품 및 먹거리 판매와 인식 개선 부스 등이 포함된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 대　　상 : 2015년 6월 5일(금)
· 장　　소 : 2호선 봉천역 4번출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앞
· 문　　의 : 02-880-0824 지역사회지원센터

관현맹인전통예술단, 한국-호주 FTA 협정 기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공연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세계에 우리 국악을 알리기 위해 2012년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뉴욕 카네기 홀 공연에 이어, 올해 7월에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한국-호주 FTA 협정을 기념하는 국악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 일　　시 : 7월 14일(화)~28일(화)
· 장　　소 : 호주(오페라하우스, 시드니대학 그레이트홀, 호주국립대학 등)

음악재활센터 점자악보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점자악보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다양한 장르의 점자악보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점자악보 제작의뢰도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가입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usicbraille.org
(네이버 검색창에서 '점자악보'로 검색)
· 문　　의 : 효명음악팀 02-880-0674

2015 시각장애인 취업자간담회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한 시각장애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자간담회를 운영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는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일　　시 : 연 5회 (4 / 6 / 7 / 9 / 10월 예정)
· 장　　소 : 복지관 및 외부장소
· 문　　의 : 02-880-0852 고용지원센터

2015 음악교육지원프로그램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서양 · 전통음악교실(중창, 플루트, 피아노, 드럼, 보컬, 신디, 국악동요, 전통 타악, 해금)을 진행하며, 특별히 전문음악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서양 · 전통심화교실(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가야금, 판소리, 피리, 해금)을 운영합니다.

· 일　　시 : 연중
· 장　　소 : 설리번학습지원센터
· 문　　의 : 02-880-0680~4 음악교육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후원계좌 하나은행 577-910002-139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지원 하나은행 577-910005-380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요양원후원계좌 하나은행 577-910008-121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CMS 정기자동이체 신청 전화문의 홍보팀 02-880-0868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내역

구분	복지관 후원	개안수술후원	실로암요양원후원	복지회후원	총액
2월	37,301,550	1,635,000	2,496,860	2,427,000	43,860,410
3월	13,340,610	205,881	6,393,061	3,531,648	23,471,200
4월	38,531,046	2,265,000	4,123,780	11,372,075	59,291,901

후원자명단

복지관 후원

고선용 강구성 강문창 강미숙 강미혜 강민석 강창구 강현희 강희원 고선용 고선화 고지후 곽정훈 곽현용 곽혜영 권승혜 권영미 권정홍 권정희 김건철 김경국 김경진 김계심 김광훈 김규남 김근하 김기순 김기영 김누리 김다혜 김도연 김명아 김무논 김미경 김미선 김미영 김미정 김민경 김민식 김민정 김범수 김보정 김상수 김상영 김선아 김선주 김선하 김성애 김성자 김성진 김성찬 김성화 김성훈 김세연 김세영 김소정 김소희 김 수 김숙현 김양수 김영순 김영은 김영준 김영진 김우도 김원봉 김유리 김은실 김잔듸 김재민 김재성 김재영 김재환 김정은 김종규 김주리 김 준 김준영 김태희 김현도 김현정 김혜미 김혜인 김호남 김호정 김희영 나민형 나병택 나서휘 남기윤 남우현 남정한 노계정 노성은 노위제 노하영 노형석 당호영 당화정 도윤희 명태순 문정이 문홍수 민경나 민광기 민병찬 민성환 민수진 박경선 박경숙 박고심 박대삼 박미량 박민규 박상도 박선영 박세근 박세희 박솔인 박수호 박순이 박예지 박옥련 박용석 박용일 박은애 박정복 박종원 박지영 박지훈 박하니 박현수 박혜림 박화경 방명애 배은정 배종석 배지혜 백순복 봉하종 서성교 서원호 서의승 서희경 성기은 성영숙 성지영 성지혜 손경란 손지애 손지영 송경원 송영화 송은숙 송은정 송제용 신덕수 신동선 신성만 신영석 신종현 신준우 신혜경 신홍연 심권섭 심재민 심재숙 안연광 양관동 양호열 엄경순 엄현희 염리라 오승범 오지수 오태훈 오한나 우재연 유금옥 유남주 유미현 유보영 유자영 윤나라 윤대헌 윤명헌 윤보라 윤성재 윤소정 윤진국 이광성 이규성 이길원 이나연 이동형 이동훈 이로사 이루미 이면우 이미영 이민기 이민환 이봉희 이상철 이상현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아 이설한 이세희 이 송 이예성 이예일 이옥희 이요한 이운선 이원재 이은별 이은정 이응무 이인애 이재웅 이재은 이재희 이정아 이정원 이정인 이정춘 이정현 이주호 이지선 이지원 이지훈 이진용 이진중 이진형 이찬신 이창진 이창호 이충효 이태섭 이태준 이하영 이한미 이현숙 이혜헌 이화정 임명숙 임아인 임은성 임중재 임필립 장석철 장선희 장수진 장용전 장은경 전영숙 전정자 정갑수 정근우 정다운 정미실 정민지 정범수 정보성 정성민 정성수 정수림 정수진 정연상 정영길 정영임 정옥자 정지혜 정태준 조건희 조남주 조몽근 조미경 조봉래 조원명 조은일 조은하 조진만 주재은 차진솔 천은선 최경록 최덕영 최동미 최두수 최병현 최승원 최윤옥 최재석 최중철 최진수 최찬삼 최태선 최현덕 하명심 하은성 하은주 하종백 하효선 한성희 한숙자 한승진 한영실 한재경 한재웅 함순식 함요한 함주영 함지연 홍경미 홍권용 홍성현 홍예진 황소영 황순화 황정수 황호영 KB캐피탈 교촌치킨 대농마트 도미노피자 디디아이엔씨 무안무학교회 삼성증권 삼성토탈 서울대천연물나라 서울동노회여전도회연합회 서울우유 성보약국 숭실대학교 스튜디오뮤지컬 실로암안과병원 아름다운재단 아모텍 아워홈 우리은행 태양자동차공업사 평광교회 하나은행 한유L&S 해피빈 힘스인터내셔널

개안수술 후원

김애경 김혜순 백재은 서인선 이상훈 정인영 정항산 동부산교회 미래에셋 서울동노회여전도회연합회

실로암요양원 후원

권수진 권혜진 김광희 김동희 김무경 김병숙 김복휘 김세영 김영선 김은철 김인경 김정숙 김태연 김태웅 김형도 김호직 도윤희 박대삼 박주희 백하청 봉하종 서문섭 성옥순 신동선 신선화 이숙경 안교만 안민호 안정임 양희령 엄순희 윤찬호 이금선 이미경 이민희 이봉희 이선례 이성표 이숙경 이숙희 이순희 이영태 이정원 이진용 이춘자 임순희 장건중 장혜승 정용훈 정해용 조미경 조아라 조영순 지정규 최영훈 최우진 최종덕 한명희 한재근 함요한 함은창 함지영 함헌식 남원추어탕 서울볼링장 신한후원 실로암안과병원 아워홈 우리은행 지엘엠세미콘 하나로마트 한영볼링장 해피빈 효명교회

복지회 후원

권수진 권영진 금옥연 김경진 김남식 김미경 김미라 김미혜 김민주 김민혜 김서진 김성훈 김아름 김유빈 김정래 김정옥 김주연 김현석 김현정 나병택 남정한 노하연 노현기 맹석재 박상근 박성철 박옥희 서범수 신영실 심아름 양미나 유은분 윤재훈 이도건 이민정 이상정 이성표 이유진 이윤아 이창현 이하나 이행철 임 영 전양욱 정대영 정정자 정종일 조경자 조하연 조행금 최동익 최상국 하미진 허승희 현진수 황윤희 도너도넛 동일교회 해피빈

※ 후원금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쓰여집니다.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